

# 뿔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에 관한 연구

양 황 승<sup>\*)</sup>

## 목 차

- I. 서론
- II. 담론으로서의 언어
- III. 말하기와 글쓰기
- IV. 텍스트 해석
- V. 결론

## I. 서론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은 그의 언어이론을 토대로 체계화되었다. 그리고 그의 언어이론은 현대의 구조주의 언어학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했다. 따라서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주의 언어학에 대한 리피르의 이해와 태도에 대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리피르는 언어를 기호의 체계로 파악하는 소쉬르의 기호학적 담론 이해를 비판하고 의미론적 담론 이해를 주장한다. 그리고 기호학에 비해 의미론이 존재론적 우위를 갖는다고 말한다. 그것은 기호학은 기호를 단순히 기초적 체계로서만 다루지만 의미론은 담론의 의미 사건 속에서 체계의 사실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현대의 구조주의 언어학에서의 랑그(langue)와 빠롤(parole)에 대한 구분은 리

---

\*) 본교 철학과 박사과정 수료

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에서 기본적인 모델로 활용되고 있다. 리피르는 랑그와 빠롤의 구분에 있어서는 빠롤에, 기호학(Semiotics)과 의미론(Semantics)에 있어서는 의미론에, 사건(event)과 의미(sense)에 있어서는 의미에, 의미(meaning)와 지시체(reference)에 있어서는 지시체에 비중을 두면서 각각을 변증법적인 관계로 이해하려 했다.

뿐만 아니라 리피르는 전통적인 해석학에 대해 비판을 가한다. 술라이에르마허의 낭만주의 해석학, 딜타이의 역사 해석학, 하이데거의 존재 해석학, 그리고 가다머의 영향사 해석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기존의 해석학에서는 풀리지 않는 난제들을 자신의 텍스트 해석이론을 통해 극복해 내고 있다. 이제부터 필자는 리피르가 기존의 해석학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해 내어 놓은 그의 텍스트 해석이론을 검토하고 그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II. 담론으로서의 언어

『악의 상징론』(1960)과 『프로이드와 철학』(1965) 등을 포함한 리피르 해석학의 전기 저서에서 해석학은 '상징해석을 지향하는 이해의 작업'으로 정의된다.<sup>1)</sup> 그러나 다양성과 애매성이 상징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반 언어에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리피르는 해석학을 일반 언어의 문제와 텍스트 이론으로 확장한다.<sup>2)</sup>

리피르에 의하면 현대의 언어학에서 구조로서의 언어와 대비를 이루는 담론으로서의 언어는 현대 언어학과 더불어 정식화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담론에 관한 문제 자체는 이미 고대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들의 저서에서 언급<sup>3)</sup>한 적

1) Paul Ricoeur, *Freud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Denis Sava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9. : 'Existence and Hermeneutics' in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dited by Don Ihd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74), pp.12-13.

2) Paul Ricoeur, 'From Existentialism to the Philosophy of Language', in *The Philosophy of Paul Ricoeur*, edited by Charles E. Reagan & David Stewart. (Beacon Press, Boston, 1978), pp.88-91.

3) Paul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7. pp.1-2. (이하 IT로 약칭함)



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그들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리피르는 플라톤이 그의 저서 『크라틸루스』(*Cratylus*)에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 붙이기는 말하기의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립된 단어나 이름의 “진리성”(truth) 문제는 미결정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다. 즉 언어의 로고스(logos)는 적어도 하나의 명사와 하나의 동사를 필요로 하며, 바로 이들 두 단어가 상호 얽힘으로써 언어와 사고의 최초의 단위를 구성하기 때문에 이런 단위만이 진리성에 대한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리피르는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그의 저서 『해석에 관하여』(*On Interpretation*)에서 유사한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하나의 명사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하나의 동사는 그 자신의 의미에 더하여 시간적 함의를 가진다. 그리고 이들 양자의 결합만이 로고스라 불릴 수 있는 서술적 고리, 즉 담론을 낳는다. 그리고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인 행위를 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종합적 단위이다.

### 1. 랑그와 빠롤 : 구조주의 모델

리피르의 언어이론은 현대의 언어학과의 대화에서 전개된다.<sup>4)</sup> 리피르는 담론에 대한 논의가 현대 언어학에서 후퇴하게 된 원인을 소쉬르에게서 찾는다. 소쉬르는 그의 유명한 저작 『일반 언어학 강의』에서 랑그(langue)로서의 언어와 빠롤(parole)로서의 언어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리피르는 이러한 구분이 현대 언어학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담론으로서의 언어에 대한 논의를 후퇴시켰다고 말하고 있다.<sup>5)</sup> 즉 소쉬르에 의해 이루어진 이분법적 구조주의 모델이 언어학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고 구조주의 모델로서의 언어학적 모델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면서 담론에 대한 쇠퇴가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원래 구조주의 모델은 문장보다 더 작은 단위들, 어휘체계의 기호들, 어휘체계의 의미 있는 단위들이 합성되는 음운론적 체계들의 불연속적인 단위들 등에 관련

4) Ibid., pp.1-8.

5) Ibid., p.2.

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조주의 모델을 문장보다 더 큰 언어학적 실체에 적용<sup>6)</sup>함으로써, 그리고 언어적 의사 소통의 텍스트들과 유사한 비-언어적 실체들, 예를 들어 도로 표지, 식탁 예절, 의상, 건물과 주택의 주소, 장식 패턴 등과 같은 문화적 약호들에 적용함으로써 결정적인 확장이 이루어졌다.

리피르르는 기호들의 체계를 단혀 있는 체계로 보는 구조주의를 비판한다. 다시 말해 기호들은 외적이며 비-기호적인 실체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구조주의의 이론은 포괄적인 사유양식으로 특성화는 가능하지만 이러한 구조주의에서는 언어가 더 이상 정신과 사물을 매개하지 않으며, 언어는 그 자신의 세계 속에서 체계의 구성 요소인 대립과 차이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각 항목이 같은 체계 내의 다른 항목을 가리킬 뿐이라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구조주의는 언어를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삶의 형식”으로 간주하지 않고, 내적 관계들의 자족적인 체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런 극단적인 지점에 이르면 담화로서의 언어는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 2. 의미론(Semantics)과 기호학(Semiotics)

리피르르는 기호가 언어의 기본단위라는 구조주의의 일차원적 접근에 대하여 언어는 환원할 수 없는 두 가지 단위인 기호와 문장에 의존한다는 이차원적 접근을 대비시킨다. 그리고 전자의 입장을 기호학과, 후자의 입장을 의미론과 연결시킨다. 또한 리피르르는 기호론과 의미론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위계적인 질서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의미론은 기호론에 비해 존재론적 우위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기호론은 기호를 단순히 사실적 실체로서만 다루지만 의미론은 담론의 의미사건 속에서 체계의 사실성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sup>7)</sup>

리피르르에 의하면 기호론의 대상인 기호는 단지 가상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문장

6) 리피르르는 구조주의의 모델을 일련의 연속적인 담화에 적용한 예로 프로프(V.Propp)와 같은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과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를 들고 있다. 러시아의 형식주의자들의 민담 연구는 문학이론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왔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구조주의 모델을 신화에 적용한 인물이다. *libid.*, p.4.

7) *Ibid.*, p.9.

은 말하기만큼이나 실제적이다. 그에 따르면 문장은 좀 더 크거나 복잡한 단어가 아니라 새로운 언어 단위이다. 그리고 문장이 단어들로 분해될 수는 있지만 분해된 그 단어들은 짧은 문장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다. 따라서 문장은 그 부분들의 총합으로 환원될 수 없는 전체적인 그 무엇이다. 문장은 단어들로 이루어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문장이 바로 그 단어들로부터 나온 파생적인 기능을 갖지는 않는다. 따라서 음소(phoneme)에서 어휘소(lexeme)로, 어휘소에서 문장으로, 다시 문장에서 더 큰 언어 전체로 이어지는 단선적인 진행은 존재하지 않는다.

리피르는 언어학에 있어 프랑스의 산스크리트 학자 에밀 뱅브니스트(Emile Benveniste)의 견해를 받아들인 것 같다. 뱅브니스트에 따르면 언어는 보다 큰 전체로의 '통합'(integration)과 구성적인 부분들로의 '분해'(dissociation)라는 두 종류의 작용 기능성에 근거하고 있다.<sup>8)</sup> 리피르는 여기서 의미는 첫 번째 작용에서 나오며, 형태는 두 번째 작용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호들의 과학인 기호론은 언어를 구성 부분들로 분해하는 것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며, 문장의 과학인 의미론은 언어의 통합적 과정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의미(sense)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밝히고 있다. 리피르는 이러한 기호론과 의미론의 구분이야말로 전체 언어 문제를 탐구하는 열쇠와도 같다고 주장한다.<sup>9)</sup>

### 3. 답론의 구조

리피르에 따르면 텍스트란 '기록에 의해 고정된 답론'(discourse fixed by writing)이다.<sup>10)</sup> 즉 텍스트란 말로 직접 표현되는 답론이 쓰는 행위에 의해 문서로 고정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답론의 기본 구조는 주관-객관의 구조이다. 하나는 '사건(event)과 의미(meaning)'의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sense)와 지시체(reference)'의 구조이다. 모든 답론이 사건(event)으로서 현실화될 때 모든 답론

8) Ibid., p.7.

9) Ibid., p.8.

10) Paul Ricoeur, 'What is a text?' i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dited & translated by John B. Thompson.(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146. (이하 WT로 약칭함)

은 의미(meaning)로서 이해된다.<sup>11)</sup> 담론에 있어서 사건은 시간 안에서 일시적인 것으로 사라진다 해도 그것의 의미는 지속적이다. 그리고 사건에서는 '진술자의 의미'가 '진술된 의미'에서 발견되며, 주관적 측면인 '진술자의 의미'는 객관적 측면인 '진술된 의미'와 일치한다. 이것은 사건으로서의 담론의 '자기 지시기능' 때문이다.

리피르르 이러한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은 담론의 구조를 완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진술된 의미'를 더 깊게 탐구한다. 리피르르 담론의 또 다른 구조인 '의미'(sense/Sinn)와 '지시체'(reference/Bedeutung)를 다룸에 있어 프레게의 이론<sup>12)</sup>을 이용한다. 여기서 의미는 담론의 내용(what)을, 지시체는 담론의 지시연관(about what)을 가리킨다. 담론의 의미는 대화 안에서 객관적이고 내재적으로 머무나, 지시체는 의미가 지시하는 어떤 것으로서 의미를 넘어서 의미 밖에 있다. 그리고 지시체는 의미 파악과는 독립적으로 주어지나, 의미 안의 단서를 통해서만 위치가 정해질 수 있다. 담론의 지시적 기능은 언어를 세계와 관계시켜서 상용관계를 수립한다.<sup>13)</sup> 리피르르의 이러한 '의미'와 '지시체'의 변증법은 먼저 담론의 의미구조를 해명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담론의 지시 측면이나 일상적 현실 너머의 존재론적 세계(텍스트 세계)의 정립을 간과하고 있는 구조주의를 보완해 주며<sup>14)</sup> 저자나 화자의 의도를 재구성하려는 낭만주의적 주관주의를 극복하게 한다. 다시 말해 리피르르 낭만주의에 대해서는 '작품구조를 통한 객관화'를 강조하고, 구

11) Paul Ricoeur, IT, p.12.

12) G. Frege, "On Sense and Reference", trans. Max Black, in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Peter Geach and Max Black(eds.) (Oxford: Basil Blackwell, 1970), pp.56-78.

Frege는 그의 논문 'ber Sinn und Bedeutung'에서 '의미'와 '지시'의 문제를 다루었다. 프레게는 문장의 진리치 판별기준을 세우기 위해 말이 지닌 의미와 말이 가리키는 대상 자체의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프레게는 언어와 실재(reality)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리피르르 프레게의 이 이론을 그의 텍스트 이론에 이용하여, 텍스트의 '의미'(sense)와 텍스트의 '지시체'(reference)를 구별한다. 리피르르 '담론의 지시체'를 '텍스트의 세계'라 말한다.

13) Paul Ricoeur, IT, p.20.

14) Paul Ricoeur,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Hermeneutik', in *Evangelische Theologie, Sonderheft, München*, 1974. pp.31-32. (이하 PTH로 약칭함)

조주의에 대해서는 '문서를 통한 존재론적 세계의 정립'을 강조한다.<sup>15)</sup> 그러면서 리피르는 모든 심리학화된 해석학의 가정들은 담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event)과 의미(meaning)의 변증법과, 의미(meaning)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의미(sense)와 지시체(reference)의 변증법, 이 양자에 대한 이중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sup>16)</sup> 이러한 언어이론을 토대로 리피르는 그의 텍스트 이론을 전개한다.

### Ⅲ. 말하기와 글쓰기

리피르는 해석학이 텍스트 지향적인 해석이고, 또한 텍스트가 글로 씌어진 언어라면 해석에 관한 그 어떤 이론도 글쓰기의 문제를 비켜갈 수 없다고 말한다. 이 장에서는 사건과 의미의 변증법 속에 말하기로부터 글쓰기로 이행하는 기능성의 조건이 있음을 밝히고, 글쓰기에서 드러나는 지향적 외재화(intentional exteriorization)의 문제와 해석학의 핵심인 소격화(distanciation)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리피르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 1. 말하기로부터 글쓰기로

리피르에 따르면 글쓰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잠재적 상태 속에 있던 무언가가, 그리고 살아 있는 말 속에 맹아적이고 불완전한 채로 담겨 있던 무언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다. 즉 사건으로부터 의미가 분리되는 것이다.

사건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이를 글로 써서 고정시켜야 하는 일이 생긴다. 담론이 말해졌을 때에는 사라지고 글로 씌어졌을 때에는 고정되는 것은 오직 담론이 잠재적이고 현재적인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정시키고자 하는 것은 랑그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담론이다. 우리가 기록에 의해 알파벳, 어휘, 문법을 고정시킬 때 이들 모두는 고정되어야 할 유일한 것인 담론에 봉사한다. 이 때 언어의 비시간적(atemporal) 체계는 나타나지도 사라지지도 않으며, 또한

15) Ibid., p.31.

16) Paul Ricoeur, IT, p.23.

발생하지도 않는다. 고정시켜야 할 것은 오직 담론뿐이다. 왜냐하면 사건으로서의 담론은 사라지기 때문이다.<sup>17)</sup> 우리가 글로 쓰는 것, 우리가 기록하는 것은 말하는 행위의 노에이며, 사건으로서의 사건이 아니라 발화 사건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기록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담론의 운명이다. 오직 “말하기”(saying)가 언표하기(enunciation)가 될 때, 담론은 담론으로서 완성된다.<sup>18)</sup>

화자와 청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의사 소통의 한쪽 끝에는 메시지와 화자의 관계가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메시지와 청자의 관계가 있다. 이 두 관계의 극은 말로 맺어지는 직접적인 관계가 글쓰기와 읽기라는 좀 더 복잡한 관계로 대체될 때 근본적으로 변한다. 대화적 상황은 깨지고 쓰기-읽기 관계는 더 이상 말하기 듣기 관계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구어담론에서는 화자가 대화의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적인 지향성과 담화의 의미가 서로 일치한다. 따라서 화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과 담론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된다. 하지만 씌어진 담론에서는 저자의 의도와 텍스트의 의미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 그것은 씌어진 담론에서는 텍스트의 언어적 의미와 저자가 생각한 의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때 기록이라는 개념은 단지 이미 존재하는 구어담론을 고정하는 것 이상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부여받게 된다. 이는 저자가 생각한 의도가 텍스트의 문자적 의미와 분리되었기 때문이며, 저자가 의미하는 바가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와 분리되었기 때문이다.<sup>19)</sup>

리피르는 이와 같은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은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것은 주석학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주석학은 저자의 심리와 연결된 고리들을 끊고 일단의 의미들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된다. 하지만 리피르는 해석의 이러한 탈심리화가 저자가 의미하는 개념이 모든 중요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리피르는 사건과 의미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것은 만약 우리가 사건과 의미의 관계를 비변증법적으로 파악한다면 우리는 상반된 두 가지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웬사트(W.K. Wimsatt)가 “의도적 오류”(intentional fallacy)라 불렀던 것으로

17) Ibid., p.26.

18) Ibid., p.27.

저자의 의도를 텍스트 해석의 타당한 근거로 삼는 오류를 말한다. 다른 하나는 리피르가 의도적 오류와 대비시켜 “절대적 텍스트 오류”(the fallacy of absolute text)라 부르는 것으로 텍스트를 저자가 없는 실체로 가정하는 오류를 말한다.<sup>19)</sup> 의도적 오류가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간과한 것이라면, 절대적 텍스트 오류는 텍스트가 누군가에 의해 말해진 담론으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말한 것이라는 점을 망각한 것이다.

구어담론에서는 대화적 상황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누군가(당신이라는 2인칭 대상)에게 말하는 반면, 글로 씌어진 담론은 익명의 독자와 글을 읽을 줄 아는 미래의 잠재적 독자들에게 말한다. 잠재적인 독자층을 열어 주는 것, 다시 말해 텍스트의 청중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이다. 따라서 텍스트는 독자들에게 대해 그리고 해석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한다. 텍스트에 대한 무한한 독서의 기회는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에 대한 변증법적 대립물이다.

그리고 지시와 관련하여 볼 때, 구어담론에서 모든 지시는 외시(monstration)에 의존한다. 그리고 이러한 외시는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황에 의존한다. 결국 구어담론에서 모든 지시는 상황적이다. 하지만 글쓰기는 이런 대화적 상황의 토대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작가와 독자 사이에 시·공간적 거리로 인해 둘 사이에는 공통적인 상황이 부재하게 된다. 구어담론에서의 지금/여기는 화자의 목소리, 얼굴 표정, 몸짓 등이 외적인 물질적 표지들로 대체되면서 폐기된다. 그리고 텍스트가 작가의 현존으로부터 분리되면서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이 생겨난다.

이처럼 지시적 범위가 대화적 상황을 넘어 확장됨으로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리피르는 이러한 글쓰기 덕분에 인간은 하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갖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sup>20)</sup> 리피르는 또한 담론은 반드시 무언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절대적 텍스트라는 이데올로기를 거부한다.

리피르에 따르면 세계란 내가 지금까지 읽고, 이해하고, 사랑해 온 모든 텍스트가 열어 주는 지시들의 총체이다.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우리의 환경(Umwelt)으로부터 하나의 세계(Welt)를 만들어 내는 모든 의미 작용을

19) Ibid., p.29.

20) Ibid., p.30.

21) Ibid., p.36.

우리의 상황에 대한 술어들 속에 끼워 넣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담론 속에서 맨 처음 이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투사를 통한 새로운 세계-내적 존재방식에 관한 윤곽이다.

## 2. 글쓰기를 위한 변명

지금까지 우리는 구술담론 속에서는 맹아적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던 지향적 외재화가 글로 씌어진 담론에서는 표면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리피르는 이러한 지향적 외재화는 일종의 소외가 아닌가 묻고, 지향적 외재화를 긍정적인 방향에서 이해한다. 리피르는 외재성의 조건을 하나의 문화적 사건이나 담론의 우연적 조건으로, 더 나아가 해석학적 과정의 필수 조건으로 전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2)</sup> 그리고 담론의 지향적 외재화가 갖는 이런 역설은 오직 소격화를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해석학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글쓰기에 대한 공격은 오래 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것은 플라톤이 외재성이 진정한 회상에 반대된다고 비난했던 특정 지식, 과학, 지혜의 양식과 연관된다. 리피르에 따르면 플라톤은 신화적 형태를 빌어 글쓰기에 대한 비난을 했다. 즉 만일 영혼들이 자신의 내면에 의존하지 않고 이처럼 외적인 표지들 속에 그 확신을 담게 된다면, 영혼들은 더욱 쉽게 망각될 것이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이런 외적 표지들이 가져다주는 것은 실재가 아니라 실재의 유사물일 뿐이고, 또 지혜가 아니라 지혜의 외양일 뿐이라는 것이다.<sup>23)</sup> 글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비판 또한 흥미롭다. 소크라테스는 글쓰기는 그림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존재를 만들어 낼 뿐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글은 질문을 받으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침묵하며, 누군가가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질문을 하면 글은 “언제나 단 하나의 똑같은 의미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sup>24)</sup> 루소 또한 글이 출현하면서 인간에게는 분리와 독재와 불평등이 시작되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sup>25)</sup> 베르그송도 진정한 말은 화자가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의 의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적절한 표현을 추구하는 “지적

22) Ibid., p.38.

23) Ibid., p.38.

24) Ibid., p.39.



노력”으로부터 나오는데, 글은 말과 감정, 노력, 생각의 역동성을 연결하고 있는 고리를 끊어 버린다고 비판한다.<sup>25)</sup>

하지만 리피르는 글쓰기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에 대한 반론의 중요한 단서를 『파이드로스』(Phaedrus)에서 찾는다. 여기서 글은 그림에 비유되고 있는데, 그림에 있어 그림의 이미지는 살아 있는 존재보다 더 약하고 덜 실제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리피르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본래적인 것보다 못한 것을 산출해 내는 것이 아니라, “도상적 증대”(iconic augmentation)라는 말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 그리기의 전략은 한정된 시각적 알파벳을 바탕으로 실재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축약과 간략화의 전략은 더 적은 것을 다룸으로써 더 많은 것을 산출해 낸다는 것이다.<sup>26)</sup> 리피르는 똑같은 교훈을 판화와 에칭 기술에서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비숙련가가 찍은 사진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 것도 포착하지 못한다. 하지만 판화는 핵심적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 그것은 그림과 마찬가지로 판화가 다른 무엇보다도 나름대로 고안된 하나의 알파벳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알파벳이란 최소한의 기호들, 곧 생략, 선, 여백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러한 기호들은 대상을 부재로 둘러싸으로써 그 특성을 더욱 부각시킨다.<sup>27)</sup> 끝으로 인상주의와 추상 미술도 역시 점점 더 자연적인 형태들을 소거하고 일상적인 시각과 대비되는 기본적인 기호들의 조합을 구성하는 데로 나아간다. 여기서도 우주의 회화적 포착은 직접성을 근본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더 이상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하는 것”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리피르는 실제의 미학적 증대로서의 도상성에 관한 이 이론이 글쓰기에 대한 플라톤의 비판에 결정적으로 맞설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준다고 말한다. 도상성은 실재를 다시 쓴 것이다. 리피르는 엄밀한 의미에서 글쓰기는 도상성의 특수한 경우로, 담론을 기록하는 것은 세계를 옮겨 적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옮겨 적기는 복제가 아니라 변형이라는 것이다.<sup>28)</sup>

25) Ibid., p.39.

26) Ibid., p.40.

27) Ibid., p.40.

28) Ibid., p.41.

## Ⅳ. 텍스트 해석

### 1. 텍스트란 무엇인가?

리피르르 는 텍스트를 '말함과 문서 사이의 관계', '구조화된 작품', '세계기획', '이해함의 매개' 라는 네 범주로 이해한다.<sup>29)</sup> 이제부터는 이 네 범주를 중심으로 리피르르가 말하는 텍스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무엇보다도 텍스트는 '기록에 의해 고정된 담론'<sup>30)</sup>이다. 사건으로서의 담론은 그것이 기록되어 고정화될 때, 사건과 의미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킨다. 즉 기록(writing)에 의해 '사건' 과 '의미' 사이에 '간격' (distanciation)이 생긴다. 그것은 기록에 의해 일시적인 사건 자체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지속적인 의미가 고정되기 때문이다. 사건은 더 이상 직접적으로 의미에 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의미는 오직 텍스트에서 객관화되고 외면화되기 때문이다.

사건으로서의 담론이 고정될 때, 텍스트는 저자의 의도로부터 자율적이다. 즉 씌어진 글에서는 '진술자의 의미' 와 '진술된 의미' 가 더 이상 일치하지 않게 된다. 기록에 의해 저자의 주관적 의도와 텍스트의 객관적 의미 사이에 간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리피르르 는 텍스트 해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해석학은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리피르르에 따르면 저자는 텍스트에 의해 구성되고, 기록에 의해 밝혀지고 각인된 의미의 영역에 있다. 따라서 텍스트는 바로 저자가 나타나는 장소이지만 저자는 최초의 독자 이상의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sup>31)</sup>

기록(writing)에 의해 '말하기-듣기' 의 관계는 '쓰기-읽기' 의 관계로 변한다. 구어담론에서는 대화관계에서 듣는 사람이 구체화되는 반면에, 기록된 담론에서는 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독자에게로 열려진다. 따라서 텍스트는 원래의 청자로부터 자율적이다.

29) Ibid., p.42.

30) Paul Ricoeur, PHT, p.27.

31) Paul Ricoeur, WT, p.146.

32) Ibid., p.149.

마지막으로 특정한 상황하에서 쓰여졌던 텍스트는 전혀 새로운 상황하에서 읽혀진다. 따라서 원래의 명시적 지시체(ostensive reference)로부터 자율적이다. 세계는 더 이상 말함으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작품이 펼치는 일종의 분위기로 환원된다. 이러한 세계는 작품에 의해 다시 드러난 것이라는 의미에서 '상상적'인 것이라 불릴 수 있고, 이런 세계는 그 자체가 문학에서는 창작이다.<sup>33)</sup> 이처럼 리피르는 텍스트를 저자, 원래의 청자, 최초의 대화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둬서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semantic autonomy)을 강조했다.

둘째, 텍스트는 '구조화된 작품으로서의 담론'이다.<sup>34)</sup> 작품으로서의 텍스트는 구성(composition), 양식(genre), 문체(style)라는 특성을 지닌다.<sup>35)</sup>

(1) 작품은 문장보다 더 길고 연속적인 담론이다. 따라서 여기엔 전체성과 관련된 구성이 필요하다. 작품에서는 문장의 단순한 나열이 아닌 높은 차원의 조직화가 이루어진다. 텍스트는 부분들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소재들의 서열(序列)이라는 의미에서 구조화된 단일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성과 관련되는 이해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작품은 구성 자체에 적용되어 담론을 이야기, 시, 수필 등으로 변형시키는 기호화의 형태에 종속된다. 이 기호화의 규칙이 문학의 양식을 낳는다.<sup>36)</sup> 문학의 양식은 다양한 작품들을 분류하는데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작품의 생산규칙으로서 발생학적(genetic)인 기능을 갖는다.

(3) 문체는 작품 속에 있는 특별한 관점을 증진시킨다.<sup>37)</sup> 문체는 개별화하는, 즉 개별적인 것을 생산하는 작업으로서 작품의 저자를 소급적으로 나타내 준다.<sup>38)</sup> 저자는 심리적 주체가 아니라 소재를 형태에 부여하는 언어작업의 예술가로 존재하고, 저자도 전체 작품과 동시적이라는 의미에서 해석의 범주에 있다.<sup>39)</sup> 이처럼 텍

33) Ibid., p.149.

34) Paul Ricoeur, 'The hermeneutical function of distanciation', in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dited & translated by John B. Thomp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131. (이하 HFD로 약칭함)

35) Ibid., p.136.

36) Ibid.

37) Ibid., p.137.

38) Ibid., p.138.

스트는 구조화된 전체, 완결된 총체로서 구성, 장르, 문체의 특징을 지닌다.

셋째, 텍스트는 텍스트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리피르에 따르면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sense/What it says)로부터 텍스트의 세계(reference/What it talks about)에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sup>40)</sup> 텍스트의 세계 기획에 있어 리피르는 '모든 진술에는 의미(sense)와 지시체(reference)가 있다'는 프레게의 견해를 수납하여<sup>41)</sup> 그의 텍스트 이론에 적용한다.

리피르는 두 가지 의미의 '텍스트 세계'를 말한다. 그것은 '일상 언어세계'와 '존재론적 세계'이다. 전자는 기술적 또는 과학적 텍스트의 세계로서 일의적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실재에 대해 기술적 표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 그리고 후자는 소설 또는 시와 같은 작품의 세계로서 다의적 언어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이다. 이 세계는 시적 상상력에 의해 접근되는 가능적 세계이기 때문에 해석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여기서 독자는 반성적, 그리고 해석학적 주관이다. 소설이나 시는 '생산적 상상력'에 의해 일차적인 준거체계를 파괴한다. 그런데 이것은 곧 허구적이고 시적인 세계가 열리는 조건이 된다.

'소설과 시에 의해서 일상적인 현실 속에 세계-내-존재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 소설과 시는 주어진 존재의 양식에서의 존재가 아닌 존재가능 양식에서의 존재를 목표로 한다'.<sup>42)</sup>

따라서 작품의 세계는 일상언어의 세계가 아니라 그것의 파괴이다. 작품의 세계는 현실에 대한 새로운 소격화를 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대한 소의를 통해서 텍스트의 고유한 세계가 구성되어진다.

넷째, 텍스트는 그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독자의 자기이해를 매개한다. 여기서 이해는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가 전개하고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매개의 주체는 독자의 자아가 아니라 텍스트의 사실이다. 이해는 텍스트의 사실에

39) Ibid.

40) Paul Ricoeur, IT, pp.87-88.

41) Paul Ricoeur, HFD, p.140.

42) Paul Ricoeur, PTH, p.32.

의해서 구성된다. 여기서 이해함이란 친숙화(appropriation)의 경험을 말하는데, 이 때의 친숙화는 결코 슬라이에르마허나 딜타이에서처럼 주관의 심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가다머가 말하는 '텍스트 사실' (Sache des Textes)에 마주서는 행위이다. 텍스트로 나아가고 그것으로부터 넓어진 자기를 얻는 것이다. 여기서 친숙화 행위는 자아의 상상적 변화이다. 이러한 자아의 변화는 자기자신과의 관계에까지 이르는 소격화의 계기를 함축한다.

## 2. 소격화(distanciation)와 친숙화(appropriation)

리피르는 텍스트를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의 특별한 예 이상의 것으로 간주한다.<sup>43)</sup> 리피르에 따르면 텍스트는 인간의 경험의 본질적 특징을 펼쳐고 있다. 리피르는 인간의 역사적 경험에 있어 소격화의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기능을 텍스트 개념과 관련하여 네 가지로 서술하고 있다.<sup>44)</sup>

(1) '담론으로서 언어 실현'은 소격화의 근본형태이다. 이 소격화는 위에서 '사건과 의미'의 관계로 다루어졌던 것이다. 담론은 사건으로 주어진다. 그것은 담론이 시간적으로 실현되고 현재 속에 있는 반면 언어의 체계는 실제적이고 시간 밖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소격화는 '말해진 것' (the said) 속에서 '말하는 것' (the saying)의 소격화이다.<sup>45)</sup>

리피르에 따르면 소격화는 담론의 고정을 통해 담론을 소멸로부터 보존한다. 그리고 소격화가 저자의 의도로부터 텍스트의 자율성을 가능케 한다. 여기서 텍스트가 갖는 자율성은 슬라이에르마허나 딜타이의 심리주의적 조건에서 벗어난다. 텍스트의 자율성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해석학적 결론을 갖는다.

'소격화란 오히려 텍스트 현상을 문서로서 구성하며 동시에 그것은 해석의 조건이다', '소격화란 이해가 정복해야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해를 제약하는 것이다'.<sup>46)</sup>

43) Paul Ricoeur, HFD, p.131.

44) Ibid.

45) Ibid., p.134.

46) Paul Ricoeur, PTH, p.28. HFD, p.140.

(2) 리피르르는 작품으로서의 담론과 관련하여 소격화를 말한다. 구조화된 작품인 텍스트는 구성(composition), 양식(genre), 문체(style)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닌다. 담론이 작품으로 객관화되면서 제 2의 소격화가 일어난다. 여기서 텍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더 이상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담론의 객관화라는 소격화 기능은 달타이적인 설명과 이해의 이분법을 극복한다.

달타이에 있어서 '설명' (Erklären)이란 사물을 표면적으로 관찰하고, 규칙과 법칙성에 따라서 그 구조를 드러내는 자연과학의 방법이며, '이해' (Verstehen)란 '감정이입' (Einfühlen)에 의해 타자의 체험을 파악하는 정신과학의 방법이다.

리피르르는 담론의 구조적인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대립을 지양한다. 리피르르에 있어서 설명과 해석은 더 이상 대립적이지 않고 변증법적 과정이다. 설명은 이해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길이며 이해를 분석적으로 발전시킨다. 반면에 이해는 설명을 포함하고, 설명에 선행하며, 설명을 발전시킨다.<sup>47)</sup>

(3) 저자와 독자 사이에도 소격화가 일어난다. 구술담론에서는 화자와 청자에게 대화상황이 공통적이지만, 쓰고 읽는 관계인 작품에서는 그 상황이 다르다. 더 이상 저자와 독자 사이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공통된 상황은 없다.<sup>48)</sup> 이러한 명시적 특징이 있는 증거가 폐기됨으로써 텍스트의 고유한 세계가 구성된다.<sup>49)</sup> 이러한 제 3의 소격화에 의해 '일차적인 지시연관'이 파괴되고, '이차적인 지시연관'이 산출된다. 즉 '일상적인 문자의 세계'가 파괴되고 후설이 말하는 '생활세계' (Lebenswelt),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내-존재' (In-der-Welt-Sein)의 영역이 드러난다. 텍스트에 대한 해석은 곧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기획이다.<sup>50)</sup> 텍스트의 세계기획에 의해 존재론적 세계가 개시된다.<sup>51)</sup>

(4) 리피르르는 작품 앞에서의 자기이해와 관련해 소격화의 긍정적 기능을 말한다. 텍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이다. 텍스트

47) Paul Ricoeur,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in *The Philosophy of Paul Ricoeur*, edited by Charles E. Reagan & David Stewart. (Beacon Press :Boston. 1978), p.165.

48) Paul Ricoeur, HFD, p.141.

49) Ibid., p.142.

50) Paul Ricoeur, PTH, p.33.

51) Paul Ricoeur, HFD, p.141.

를 통해 독자는 저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텍스트를 통해 자기존재를 이해하는 것을 리피르는 '친숙화' (appropriation/Aneignung)라고 부른다. 따라서 친숙화는 저자의 의도를 추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때의 이해 또한 주관에 의해 산출되지 않는다. 자기(Self)는 오히려 텍스트의 사실에 의해 규정된다. 즉 리피르에 따르면 텍스트의 사실에 기초한 이해와, 작품 앞에서의 자기 이해가 올바른 이해이다.<sup>52)</sup> 여기서 리피르는 하이데거에 의해 개통된 이해의 존재론적인 전향, 그리고 가다머에 의해 수행된 존재론적 이해의 인식론적 정초를 수용하고 있다.<sup>53)</sup>

리피르에 따르면 '친숙화'란 낯선 것을 자신의 고유한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sup>54)</sup> 리피르는 친숙화를 해석의 완성, 또는 해석학의 목표라 부르며<sup>55)</sup> 그것에 대해 세 가지로 정의한다.

(1) 친숙화는 소격화를 전제하며, 또한 소격화의 변증법적 짝이다.<sup>56)</sup> 작품에서는 의미가 객관화됨으로써 저자로부터 간격이 생기지만, 그것은 저자와 독자 사이의 대화적인 매개가 된다. 독자는 텍스트의 세계로 자신을 개방한다. 그리고 독자는 텍스트가 펼치는 새로운 존재양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즉 친숙화는 독자가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2) 리피르는 친숙화 개념을 세계 개시 개념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리피르는 가다머가 "진리와 방법"에서 도입했던 '놀이의 존재론'을 도입한다. 리피르는 작품을 놀이와 동일시한다. 놀이는 허구로서 그 자체의 존재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놀이자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놀이 속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세계가 정지되고, 새로운 지평의 세계가 개시된다. 리피르에 따르면 작품 속에서 저자와 독자는 허구적인 인물로 변형된다. 저자는 작품 속에서 사라지고 화자로 등장한다. 이 때 화자는 저자가 아니지만 저자에 의해 창조된 자율적 형상이다. 독자 역시 그의 자아의 상상적 변양 속으로 나아간다. 거기에서 작품의 고유한 세계가 드러난다.

52) Paul Ricoeur, PTH, p.33.

53)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서울 : 박영사, 1987), p.597.

54) Paul Ricoeur, IT, p.43.

55) Ibid., p.91.

56) Paul Ricoeur, 'Appropriation', in *Hermeneutics and Human Sciences*. p.183.

(3) 친숙화는 소격화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환상적인 자아를 포기함으로써 또한 보완된다. 리피르는 해석의 중심을 저자에게 두는 낭만주의 해석학과 독자에게 두는 실존주의 해석학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 리피르는 텍스트가 저자로부터 자율적이라는 사실과, 독자는 자신을 떠나 텍스트에로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리피르에 따르면 친숙화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포기란 텍스트의 세계를 향해 자기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자기의 편견에서 벗어남을 말한다. 따라서 친숙화란 존재의 새로운 양식을 향해 자신을 개방하는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

### 3. 텍스트의 이해

리피르에 있어서 해석이란 소격화를 생산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sup>57)</sup> 그에게 있어서 소격화는 해석의 조건이 된다. 리피르는 텍스트 이해의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하는데, 달타이와는 달리 리피르는 이해와 설명을 대립된 것으로 보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본다. 양자의 차이란 설명이 '명제와 의미의 범위'를 '해명'하는데 대해, 이해는 '종합하는 행위 안에서 부분적인 의미의 사슬을 전체로 파악'하는 데 있다.

리피르는 텍스트의 이해 과정을 세 단계로 분석한다.

첫째, 설명을 통해서 텍스트의 의미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단계이다.<sup>58)</sup> 이 단계에서는 '추측'과 '타당화'의 해석학적 순환이 야기된다. 추측은 술라이에르마허가 말하는 '예감적'이라 부르는 것에 상응하는 것이고, '타당화'는 그가 '문법적'이라 부르는 것에 상응한다.<sup>59)</sup> 추측들의 타당화는 경험적 검증보다는 확률적인 것이고<sup>60)</sup> 타당화를 위해 확률이론이 적용될 때 해석학적 순환이 일어난다. 이 해석학적 순환은 저자의 주관과 해석자의 주관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심리적 차원이 아

57) Paul Ricoeur, IT, p.44.

58) Ibid., p.79.

59) Ibid., p.76.

60) Ibid., p.78.



나라, 텍스트 해석의 문장론적 차원에서 전개된다.<sup>61)</sup> 이 단계는 소박한 이해와 세련된 이해 사이에 필요한 단계이기는 하지만 해석학적 이해로는 아직 미흡하다.

둘째, 문자적 의미에서 구상적 의미로 나아가는 은유적 의미화의 단계이다. 텍스트 안에서 은유적 과정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문장의 차원과 텍스트의 차원이 그것이다. 리피르에 따르면 우리는 문장에서 은유가 문자적 의미에서 구상적 의미를 창출하는 과정을 통해 텍스트 차원에서 구상적 의미가 출현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sup>62)</sup> 은유적 과정은 본문의 의미를 넘어서는 언어의 재창조 조건으로 기능한다. 이런 은유적 과정을 통해서 본문의 의미는 구상적 의미를 제시한다.

셋째, 텍스트 세계를 구성하는 단계이다. 문자적 의미를 뛰어넘은 구상적 의미가 구상적 준거를 지시하는 단계이다. 이 지시 방식에 관해 리피르는 세 가지를 든다. '분위기'와 '텍스트 세계'와 '존재의 양태'가 그것이다. 분위기관 독자의 상태라기보다는 사실의 객관적인 상태이다. 독자는 이 분위기의 기반 위에서 은유적 의미에 속하는 상들을 결합하여 텍스트의 세계를 형성한다. 해석이란 이 텍스트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인데, 이 때의 이해는 텍스트 세계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 세계 앞에서의 자기이해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해 텍스트의 준거자는 텍스트의 분위기나 상호 연관관계인 텍스트의 세계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이해되는 자아이다. 이것은 텍스트 세계 내에서, 은유적 의미의 기반 위에서 발견된다. 은유적 의미는 비언어적 실재와 조화가 되도록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는데, 리피르는 이 비언어적 실재를 은유에 의해 표현된 존재양태라 한다.

## V.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은 현대의 구조주의 언어학과의 대화 속에서 발전한 그의 언어이론을 토대로 체계화되었다. 현대의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 모델인 랑그와 빠롤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은 리피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에서도 기본적인 모델로 사용된다. 리

61) Ibid., p.79.

62) Ibid., p.46.

피르르의 랑그와 빠를, 기호학과 의미론, 사건과 의미, 의미와 지시체의 구분에 있어 모두 후자쪽에 비중을 두면서 각각을 변증법적인 관계로 이해하려 한다.

리피르르의 텍스트를 기록에 의해 고정된 담론으로 정의하고, 구술담론과 씌어진 담론의 차이를 명쾌하게 규명해 내고 있다. 그리고 텍스트를 저자, 원래의 청자, 그리고 최초의 대화상황으로부터 거리를 뒀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론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리피르르의 텍스트 해석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자 했던 낭만주의 해석학이 이런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리피르르에 따르면 텍스트는 텍스트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텍스트 세계에서는 현실세계를 새롭게 재기술함으로써 존재론적 세계가 개시된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sense/What it says)로부터 바로 이 텍스트의 세계(reference/What it talks about)에로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다. 텍스트는 그의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독자의 자기이해를 매개한다. 여기서 이해는 독자가 텍스트 앞에서 텍스트가 전개하고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따라서 해석이란 텍스트의 세계를 잘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의 이해는 텍스트 세계 자체가 아니라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의 자기이해이다.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인 나에게 현실화되는 것이다. 결국 엄밀하게 말해 텍스트의 준거자는 텍스트의 세계가 아니라 해석을 통해 이해되는 자아가 된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핀바와 같이 리피르르의 해석이론은 텍스트가 펼치는 텍스트의 세계 앞에서의 독자의 자기이해로 요약할 수 있겠다. 리피르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은 그의 논의의 모든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판의 여지가 남아 있다. 리피르르의 텍스트 해석이론은 텍스트에 의해 드러나는 세계와 독자와의 관계, 그것도 수용하는 입장에서의 독자와의 관계를 주로 다룸으로써 해석의 객관성 내지 보편성의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된다.

### 참고문헌

- Paul Ricoeur, *Hermeneutics and the Human Sciences*, edited & translated by John B. Thomp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1)
- \_\_\_\_\_ , *The Philosophy of Paul Ricoeur*, edited by Charles E. Reagan and David Stewart. (Beacon Press : Boston, 1978)
- \_\_\_\_\_ , *The Symbolism of Evil*, Trans. E. Eucharan, New York, Harper and Row, 1967.
- \_\_\_\_\_ ,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 edited by Don Ihd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4.
- \_\_\_\_\_ , *Freud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Denis Savage.(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 \_\_\_\_\_ , *Interpretation Theory*, The Texas Christian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 *The Rule of Metaphor : Multi-Disciplinary Studies of the Creation of Meaning in Language*. Trans. Roberts Czerny & Kathleen McLaughlin & Jojn Costello, London : Routledge, 1978.
- \_\_\_\_\_ , *Fallible Man*. trans. Charles Kelbley. Chicago : Henry Regnery, 1965.
- \_\_\_\_\_ , *History and Truth*.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5.
- \_\_\_\_\_ , *Biblical Hermeneutics*. Semia 4. Missoula : University of Montana, 1975.
- \_\_\_\_\_ , *Philosophy of Will and Action : Phenomenology of Will and Action*. eds. Erwin W. Straus and Richard M. Griffith. Pittsburgh :

- Duquesne  
University Press, 1967.
- \_\_\_\_\_, *Freud and Philosophy*, translated by Denis Savage.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0), p.9. : 'Existence and Hermeneutics' in *The Conflict of Interpretations*, edited by Don Ihde.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74)
- \_\_\_\_\_, 'Philosophische und theologische Hermeneutik', in *Evangelische Theologie, Sonderheft, München*, 1974.
- G. Frege, "On Sense and Reference", trans. Max Black, in *Translations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Peter Geach and Max Black(eds.) (Oxford: Basil Blackwell, 1970)
- John B. Thompson, *Critical Hermeneutics*, Cambridge, 1983.
- Don Ihde, *Hermeneutic Phenomenology*, Evanston :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71.
- Husserl, *An Analysis of His Phenomenology*, Northwestern, Evanston, 1967.
- Richard E. Palmer, *Hermeneutic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Evanston, 1969)
- F. Schleiermacher, *Hermeneutik*, edited by H. Kimmerle, Heidelberg : Carl Winter, 1959.
-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Tübingen : Max Niemeyer, 1927.
- Hans Georg Gadamer, *Wahrheit und Methode : Grundzüge einer philosophischen Hermeneutik*, (Tübingen : J.C.B. Mohr, 1975)
-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피르까지』 (서울 : 박영사, 1987)
- \_\_\_\_\_, '리피르의 해석학적 현상학' 『신학사상』제 50집. (서울 : 한국신학연구소, 1985. 가을.)
- 한국해석학회 『현대철학과 해석 I』(서울 : 지평문화사, 1994)
- O Pöggeler. 『해석학의 철학』박순영 역, (서울 : 서광사, 1993)

**Abstract**

## A Study on Paul Ricoeur's Text Interpretation Theory

Yang, Hwang Seung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some concepts such as *Langue and Parole*, the Structural Model in contemporary study of language, Semiotics and Semantics, Event and Sense, and Meaning and Reference, which are on the basis of his hermeneutics, finally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and validity of his Interpretation Theory.

Paul Ricoeur develops a theory of discourse into a theory of the text through a specific investigation of writing. According to Paul Ricoeur, in spoken discourse the subjective intension of the speaker and the discourse's meaning overlap each other, so it is the same thing to understand what the speaker means and what his discourse means. However when the face-to-face relation is replaced by the more complex relation of reading to writing, the dialogical situation has been exploded. In this case, the relation writing-reading is no longer a particular case of the relation speaking-hearing. In written discourse, the author's intension and the meaning of the text cease to coincide. Inscription becomes synonymous with the semantic autonomy of the text. This concept of semantic autonomy is of tremendous importance for hermeneutics.

The concept of a text developed by Ricoeur has the following four remarkable features. The first is the autonomy of a text. When a discourse

is fixed by writing, it already gets semantic autonomy from the author, the first hearer, and the original ostensive reference. The second is that a text is a discourse as a structuralized work. A text as a work is characterized by composition, genre, and style. The third is that the autonomy and the textuality of a text project the world of the text. The world of a text, for Frege, 'the reference of a discourse,' for Heidegger, 'the new world of possibility,' and for Gadamer, 'the matter of a text.' The fourth is the mediatory feature of a text. A text mediates a reader's self-understanding with its peculiar world.

According to Paul Ricoeur, interpretation of a text culminates in the self-interpretation of subject, and he thenceforth understands himself better, understands himself differently, or simply begins to understand himself. Therefore on the one hand, self-understanding passes through the detour of understanding the cultural signs in which the self documents and forms itself. on the other hand, understanding the text is not an end in itself. It mediates the relation to himself of a subject who, in the short circuit of immediate reflection, does not find the meaning of his own life. In short, we can summarize this Ricoeur' Interpretation Theory as self-understang of reader before a text. In spite of all validity of his argument his Interpretation Theory has room for criticism, that is to say, nevertheless his Interpretation Theory has the problem of the objectivity and universality of interpretation.